

경찰 신문 기법과 자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김민지†

권도연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본 연구는 다양한 신문 기법들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인 신문에 대한 인식, 24개의 신문 기법에 대해 실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와 그 기법들의 허위 자백 유도 가능성, 신문 시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신문 기법을 실제 사용하는 빈도에 대한 인식과 신문 기법들이 허위 자백을 유도하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남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 손상의 위협/사용이 덜 위협적이라 지각하였다. 참가자들은 각 신문 시간을 길게 추정하였으며 그들의 약 13%는 자백 유도를 위해 필요한 일 회 최대 신문 시간을 24시간 이상으로 추정하였다. 본인과 타인이 진실과 거짓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확률을 보다 높게 추정하였고 특히 특별 훈련을 받은 전문가 집단인 경우 그 확률은 약 75%라고 높게 추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사 기관의 신문 과정을 신뢰하고 신문 기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피의자 권리 고지, 미란다 경고, 이해도, 미성년 피의자, 미란다 퀴즈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3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1-1303-0041)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김민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140-742)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Tel: 02-2077-7684 , E-mail: mkim76@sm.ac.kr

자백은 ‘증거의 여왕’으로 모든 증거 조사에 있어 절대적이고 핵심적이며 물적 증거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 해결을 위한 가장 막강한 실마리로 작용하고 있다(박경민, 임유석, & 김도우, 2009; 박용철, 2006). 수사나 공판 시에 자백이 이루어지면 피의자 기소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권영법, 2012; 하태인 2011). 이러한 이유로 수사 시 자백을 받기 위한 신문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경찰이 형사 사건의 약 98%를 처리하고 있으며 2012년에 발간한 경찰 범죄통계에 따르면 피의자가 자백한 경우가 총 범죄의 약 67%를 차지한다(경찰청, 2012).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호주, 일본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들에서 허위 자백으로 인한 오판 사례들이 알려지게 되었다(Kassin, Drizin, Grisso, Gudjonsson, Leo & Redlich, 2010). 이노센스 프로젝트에 의하면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에 DNA 재분석을 통해 무죄가 입증된 사례들이 2014년 5월 10일 현재 316건이며 허위 자백으로 인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은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The Innocence Project, 2014, April 10). 한국에서도 허위 자백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존재한다. 1심 유죄 판결이 2심 무죄 판결로 뒤집힌 1995년부터 2012년까지의 540건의 강력 사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이 뒤바뀐 원인들 중에서 허위 자백은 170건으로 3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준, 2013). 또한 물리적인 압력이 존재해야 허위 자백이 유도될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통념과는 달리 신문 기법들이 대부분 심리적인 압박으로 대체되어도 허위 자백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기수, 2012).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도 수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문 기법들과 신문을 통해 얻게 되는 자백 증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특정 신문 기법의 허위 자백 유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을 경우 무고한 피고인이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수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고 교육되고 있는 신문 기법들과 신문 시간, 그리고 자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재판 과정에서 자백 증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유무죄 판단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신문 기법과 자백 증거

신문은 수사관과 피의자의 상호대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사 활동으로 수사관이 피의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의 확인과 더불어 관련 범죄 혐의를 추궁하는 것으로 자백을 얻어내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이기수 & 김지환, 2012; 박갑렬, 2005). 사건 해결에 있어 자백은 곧 유죄의 인정이기 때문에 자백에 대한 국내 수사 기관의 의존도가 클 뿐만 아니라 법원도 실증적인 증거보다는 자백 증거를 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인권 침해의 위험성을 감수해서라도 자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박갑렬, 2005; 박경민, 임유석, & 김도우, 2009). 과학적인 증거를 획득했다더라도 범행을 둘러싼 여러 정황들을 밝혀내기 위해 피의자의 자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교육 내용을 통해서도 수사의

목적이 자백 획득에 있음을 알 수 있다(김종률, 2002, 2003; 권영법, 2012).

그러나 자백 획득 과정에서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등의 기타의 방법으로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자백 증거는 배제된다(이용식, 2011). 결국 자백의 임의성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백 획득 과정을 검토하여 형사절차에서의 자백의 적격성을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문의 기법들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물리적인 방법에서 심리적인 방법으로 변화해 왔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수사 기관에 해외의 신문 기법들이 도입되어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얼마나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되고 있는지, 실제 신문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신문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수사 기관 외부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 수사 교육 과정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유도하는 심리신문기법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리드기법(Reid Technique)에 의한 9단계의 심리신문기술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권영법, 2012). 리드 기법이 너무 이론적이기 때문에 실제 신문 상황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한국의 수사관들은 리드 기법의 내용과 비슷한 원리와 방법을 활용한 사례들이 많고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면담기법전문과정 내 ‘수사면담과 영상녹화’ 과목에서도 리드기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윤, 2007; 이윤, 2012). 또한 효율적인 신문 기법으로서의 리드 기법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지고 있다(김충식, 2013).

미국의 경우 허위 자백으로 인한 오판 사례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법심리학적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사 기관에서 교육되고 사용되고 있는 리드 기법에 대한 문제점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Kassin et al., 2010, Kassin & Gudjonsson, 2004). 한국에서도 최근 리드 기법을 사용한 용의자의 거짓말 탐지와 심리적인 조종에 대한 문제점, 이러한 심리수사기법이 허위 자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왔다(권영법, 2012; 김민지, 2011; 이기수, 2012; 박용철, 2013). 이기수(2012)는 허위 자백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허위 자백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망이나 회유 등과 같이 심리적인 신문 기법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문이나 폭행으로 인한 허위 자백보다 허위 자백을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렵고 심리적인 신문 기법을 통해 허위 자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자백을 유도할 수 있는 신문 기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심리적 신문 기법의 허위 자백 유도 가능성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이 심리적인 신문 기법을 사용하는 리드 기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리드 기법은 두 개의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선 면담 과정에서 행동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면담 대상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유죄여부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신문 과정으로 진행된다(김민지, 2011). 리드 기법 개발자들은 리드 기법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를 통해

거짓과 진실의 판단을 행동 분석 기법을 교육 받은 경우 그 판단의 정확성이 85%라고 주장하고 있다(Horbath, Jayne & Buckley, 1994). 그러나 행동 분석 기법의 효과성을 입증한 단 한 편의 연구마저도 연구 설계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아직까지 리드 기법의 신문 과정에서 사용하는 9 단계의 기법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백을 이끌어내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Kassin et al., 2010; Snook, Eastwood, Stinson, Tedeschi, & House, 2010). 또 다른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반인 들 뿐만 아니라 경찰관, 판사, CIA 요원, FBI 거짓말 탐지 검사관, 정신과 의사, 세관 조사관 등과 같은 전문가들도 진실과 거짓을 잘 구별할 수 없고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을 받은 경우에도 거짓 판별의 정확도는 5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데 있다(Kassin & Gudjonsson, 2004; Kassin et al., 2010). 흥미롭게도 신문 기법에 대해 훈련을 받는 경우에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정확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에 오히려 용의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확증 편향을 증가시켰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eissner & Kassin, 2002). 확증 편향은 자신이 세운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만을 수집하고 반박하는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 경향성을 의미한다(김청택 & 최인철, 2010). 즉, 행동 분석 기법을 교육 받은 경우 거짓말로 판단해야 하는 단서들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어 예단이 증가하고 그 예단을 지지하는 단서들만을 수집하고 그 판단에 대한 확신감도 함께 증가하여 편견과 판단 오류의 확률이 증가한다. 많은 사회과학자들과 법학자들이 심리적인 신문 기법들이 무고한 사람들에게서 허위자백을 이끌

어 낸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허위 자백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죄라는 근거가 충분한 용의자에게만 신문을 국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Drizin & Leo, 2004; Kebbell & Davies, 2006).

이기수(2012)는 한국에서 1990년 이후 조건을 충족하는 42건의 허위 자백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물리적 압력이 없는 신문이 허위자백을 유도한 사례가 총 25건에 달하고 이 중 살인죄가 28.8%, 절도와 뇌물죄가 뒤이어 각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21세기에 들어 지난 20세기에 비하여 이러한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신문이 허위자백을 더욱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범죄자라고 단정 짓는 예단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수사관의 물리적인 강압은 없으나 추궁에 의하여 자백이 유도된 경우 자백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한다하더라도 그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백이 수사관의 호의 속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자백은 수사관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 나온 허위자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하태인, 2011).

허위 자백과 잘못된 유죄 판결 간의 관계

자백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백 증거는 재판에서 판사나 배심원과 같은 사실 판단자들에게 강력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다(Findley & Scott, 2006; Kassin et al., 2010). 한 연구에서는 심지어 연구 참가자들이 자백이 강압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고 그 자백 증거를 무시하고 유

무죄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었으며 본인은 그 자백 증거가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죄 판결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assin & Gudjonsson, 2004).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허위 자백의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Kassin & Gudjonsson, 2004). 첫째는 근본 귀인 오류를 범하기 때문인데 이는 개인에 대한 행동의 원인을 외부 상황이 아닌 내부 기질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신문 상황과 같은 상황적 요인들의 영향을 과소 추정하여 허위 자백도 진실된 자백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즉, 강압적인 신문에 의한 자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범인이기 때문에 자백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간은 이기적이며 그로 인하여 자기 파괴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는 것과 같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셋째는 앞에서 설명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짓말과 진실을 판단하는 것에 능숙하지 않으며, 넷째는 신문 과정 자체가 유죄를 가정하고 다양한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확증 편향으로 용의자가 유죄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허위 자백으로 인한 잘못된 유죄 판결 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허위 자백으로 인한 잘못된 유죄 판결의 비율은 연구에 따라서는 14%에서 60%인 것으로 나타났다(Garrett, 2008; Leo & Davis, 2010). 또한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 허위로 자백한 것이 명백한 피고인이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하며 재판을 받는 경우 배심단의 유죄 평결 비

율은 73%에서 81%인 것으로 나타났다(Leo & Liu, 2009).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기수(2012)에 따르면 한국의 법원은 피고의 자백이 허위 자백일 경우 41.7%의 사례에서 자백의 신빙성과 임의성 모두 부정하였고, 58.3%의 사례에서 자백의 신빙성만 부정하고 그 임의성은 인정하였다. 자백의 임의성이 부정됨에도 그 신빙성을 따지는 법원의 태도는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허위자백이라도 신빙성이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판결에서도 문제가 드러난다. 1995년부터 2012년까지의 540건의 강력 사건들 중에서 31.5%인 170건이 허위 자백으로 인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이 2심에서 무죄 판결로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김상준, 2013). 이는 법원에서 강력 사건의 약 삼분의 일을 자백이 허위였음에도 유죄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허위 자백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가 국내 사법 체계에 부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백의 임의성 판단,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 피의자 신문 과정의 영상 녹화와 같은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다(권영법, 2012; 김웅선, 2008). 그럼에도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받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수사관들을 진정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최근까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이윤, 2012).

한국에서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어 요건을 충족하는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판단이 판사의 판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김잔디, 2008; 박미숙, 2010). 재판에서 자백 증거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신문 기법과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신문 기법의 강압성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자백 증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도 잠재적인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신문 기법에 대한 인식이 용의자에 대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생들과 경찰관들을 모의 배심원으로 판단하게 했던 실험 연구에 의하면 허위 자백과 진실한 자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ssin, Meisser, & Norwick, 2005). 잠재적인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형사 재판에서 자백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한 신문 기법과 자백에 대해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하였다(Chojnacki, 2008).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Leo와 Liu(2009)의 연구에서도 잠재적인 배심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문 기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인 압력을 사용하는 신문 기법이 심리적으로 강압적이고 진실한 자백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지만 허위 자백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 기법을 제외한 모든 신문 기법들이 허위 자백보다 진실한 자백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허위 정보(허위 자백)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신문 기법들에 대해서도 허위 자백 보다는 진실한 자백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을 포함한 잠재적 배심원들은 일반적으로 신

문 기법의 위험성이나 강압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리적인 압력을 사용하는 신문 기법들이 허위 자백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수사기관에서 교육되고 사용되고 있는 리드 신문기법은 허위자백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도로 허위 자백으로 인해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자백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될 경우 재판 과정에서 수사 기관의 신문 과정과 기법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자백의 임의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유죄 판결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존에 이루어진 수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대학생, 일반인, 판사, 배심원, 경찰관들은 허위 자백인지 진실한 자백인지에 대한 판단 정확률이 5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수사기관에서 사용되고 교육되고 있는 다양한 신문 기법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허위자백에 대한 의견 및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 신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2) 다양한 신문 기법들이 실제 경찰 신문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이러한 신문 기법들의 허위 자백을 유도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3) 신문 시간(기간)에 대한 인식, 4) 자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이러한 인식에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인권이

나 권리는 제한할 수 있고 신문 시 적당한 폭력 사용은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즉, 범죄자의 인권이나 권리보다는 신문을 통한 범죄 해결, 자백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신문 기법 중 실제 자주 사용하는 기법에 대한 생각은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기법들 중에서 특히 여성들의 경우 신체적인 위협이나 심리적인 위협을 사용하는 기법들은 실제 자주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신문 기법 중에서 허위 자백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기법에 대한 인식도 남녀 간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남성들의 경우 신체적, 심리적인 위협을 사용하는 기법에 대한 인식은 여성에 비해 허위 자백을 유도할 가능성을 낮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여성들의 경우에는 신체적, 심리적 위협은 그 강압성을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결국 허위 자백을 유도할 가능성도 높다고 인식할 것이다. 넷째, 신문 시간에 대한 인식도 남녀 간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성은 여성에 비해 경찰이 진행되는 신문 시간이 더 길고 자백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대 신문 시간도 더 길다고 인식할 것이다. 그 만큼 신체적, 심리적인 압력에 대해 여성들이 더 강압적이 허위 자백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다섯째,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무죄인 사람보다 유죄인 범인이 자백할 확률이 더 높다고 인식하고 진실과 거짓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과대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 법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 소재 4년제 대학의 재학생 18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0.30(SD=1.91)세이었고, 이중에서 남성의 비율은 35.9%였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 대학생이 24.3%, 경기 지역 거주 대학생이 73%, 충청·전라 지역 거주 대학생이 각각 1.1%이었다.

측정 도구

수사 및 신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수사와 신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총 7 문항(성인들에 비해 십대들은 더 충동적이다, 성인들에 비해 십대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더 압력을 느낀다, 최근 경험에 대한 기억은 똑똑한 신문자에 의해 변할 수 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면 범죄문제는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상의 피의자 권리는 다소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과정에서 적당한 위협이나 폭력은 사용할 수 있다, 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흉악범 등은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신문 기법 및 시간

Leo와 Liu(2009)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총 24개의 신문 기법을 6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그 범주는 1) 혐의 제기/혐의 거듭 제기하기(용의자를 반복적으로 추궁하기, 용의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기, 2)

부인하는 내용에 대해 이의 제기하기(용의자의 결백하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점이나 모순을 지적하기, 용의자에게 반복적으로 그의 알리바이가 거짓이라고 말하기, 용의자가 자신은 죄가 없다고 부인하는 말을 계속 끊어버리기), 3) 실제 유죄 증거를 직면시키기(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용의자에게 판단 불가능 결과가 나왔다고 사실대로 말하기, 거짓말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사실대로 말하기), 4)허위 유죄 증거를 직면시키기(용의자에게 죄를 입증할 수 있다며 가짜 감시카메라 증거를 제시하기, 가짜 DNA 증거를 제시하기, 가짜 지문 증거를 제시하기,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용의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속이기), 5) 관대한 처분을 약속하기(용의자를 동정하며 그 범죄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하기, 자백하면 실제보다 가벼운 범죄로 기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용의자에게 암시적으로 제안하기, 분명하게 약속하기, 자백하면 형량이 감소될 것이라고 용의자에게 암시적으로 제안하기, 분명하게 약속하기), 6) 신체적 위협/사용하기(잠을 채우지 않고 밤새도록 신문하기, 자백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암시적으로 위협하기, 분명하게 위협하기, 자백하지 않는 경우 폭력적으로 위협하기, 용의자를 구타 또는 폭행하기)이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7)심리적 위협/사용하기(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혹독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기, 용의자에게 피해자와 범행 장소의 사진을 보여주기, 용의자에게 성급함, 짜증, 분노를 표현하기) 범주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신문 기법들에 대한 인식을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우선 신문 기법의 실제 사용 빈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24 개의 신문 기법이 실제 경찰 수사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1점=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5점=항상 사용 된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신문 기법의 허위 자백 유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신문 기법들이 무고한 용의자에게서 허위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1점=매우 불가능하다, 5점=매우 가능하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신문 시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1) 경찰이 용의자 혹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평균 시간, 2) 자백을 얻기 위해 필요한 총 신문 시간, 3) 자백을 얻기 위해 한 번에 최대한 신문할 수 있는 시간, 4)신문 시간제한의 법 규정 존재 여부 및 존재 시 제한된 시간에 관하여 추정하도록 하였다.

자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사건 해결에 있어 재판상에서 사용되는 자백 증거의 중요도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백 증거, DNA 증거, 목격자 증언, 지문 증거,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중요도를 5점 척도(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 5점=매우 중요하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자백의 신빙성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1) 신문의 유죄인 자에 대한 자백 유도 가능성, 2) 신문의 무죄인 자에 대한 허위 자백 유도 가능성, 3) 법적 허용 범위 내에 혹독한 경찰 신문 중 참가자 본인이 저지른 범죄/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한 자백 가능성, 4) 본인/타인/전문가의 진실과 거짓 구별의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트로 추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본적 인적 사항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 거주 지역에 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결 과

수사 및 신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총 7문항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에 비해 십대들이 더 충동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최근 기억은 신문자에 의해 변할 수 있고 범죄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할수록 범죄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필요하다면 피의자의 권리는 다소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면 범죄문제는 점점 더 악

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수록 수사상 필요한 경우 피의자 권리는 다소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신문 과정에서 적당한 위협이나 폭력은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흉악범 등은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인권이나 권리는 제한될 수 있고 신문 과정에서 적당한 폭력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기법 및 시간

수사 기관에서 사용하는 24개의 신문 기법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7개의 범주로 구분하였고 각 신문 기법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표 1. 수사와 신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성인들에 비해 십대들은 더 충동적이다.(1)	1	.058	.124*	.164*	.122*	.038	-.005
성인들에 비해 십대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더 압력을 느낀다.(2)		1	.087	.041	-.028	-.061	-.027
최근 경험에 대한 기억은 똑똑한 신문자(예: 경찰관)에 의해 변할 수 있다.(3)			1	-.021	.016	-.082	-.089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면 범죄문제는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4)				1	.398**	.222**	.309**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상의 피의자 권리는 다소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5)					1	.429**	.334**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과정에서 적당한 위협이나 폭력은 사용할 수 있다.(6)						1	.212**
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흉악범 등은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7)							1

*p<.05, **p<.01, ***p<.001

표 2. 각 신문 기법의 실제 사용 빈도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 차이

	신문 기법		t
	남(N=65) M(SD)	여(N=118) M(SD)	
협의 제기/혐의 거듭 제기하기			
용의자를 반복적으로 추궁하기	4.15(.853)	4.31(.68)	-3.089**
용의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기	3.31(1.006)	3.33(1.03)	-.343
부인하는 내용에 대해 이의 제기하기			
용의자의 결백하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점이나 모순을 지적하기	4.08(.728)	4.12 (.68)	-1.053
용의자에게 반복적으로 그의 알리바이가 거짓이라고 말하기	3.49(.911)	3.49(.94)	.115
용의자가 자신은 죄가 없다고 부인하는 말을 계속 끌어버리기	3.12(1.023)	3.20(1.05)	-1.389
실제 유죄 증거를 각변시키기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용의자에게 판단 불가능 결과가 나왔다고 사실대로 말하기	2.48(1.066)	2.48(1.01)	-.130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용의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사실대로 말하기	3.77(1.062)	3.86(1.07)	-1.467
허위 유죄 증거를 각변시키기			
용의자에게 죄를 입증할 수 있다며 가짜 감시카메라 증거를 제시하기	2.53(1.145)	2.50(1.10)	.476
용의자에게 죄를 입증할 수 있다며 가짜 DNA 증거를 제시하기	2.34(1.181)	2.33(1.17)	.343
용의자에게 죄를 입증할 수 있다며 가짜 지문 증거를 제시하기	2.31(1.139)	2.27(1.15)	.642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용의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속이기	2.55(1.153)	2.56(1.14)	-.051
판대 한 치분을 약속하기			
용의자를 동경하며 그 범죄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하기	2.79(1.087)	2.64(1.07)	2.766**
자백하면 실재보다 가벼운 범죄로 기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용의자에게 암시적으로 제안하기	4.03(.896)	4.06(.89)	-.648
자백하면 실재보다 가벼운 범죄로 기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용의자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기	3.14(1.072)	3.06(1.05)	1.407
자백하면 형량이 감소될 것이라고 용의자에게 암시적으로 제안하기	4.05(.794)	4.06(.82)	-.232
자백하면 형량이 감소될 것이라고 용의자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기	3.10(1.084)	2.94(1.06)	2.694
신체적 위협/사용하기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도록 신문하기	2.62(1.100)	2.59(1.04)	.584
자백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암시적으로 위협하기	2.55(1.130)	2.47(1.09)	1.481
자백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위협하기	2.14(1.077)	2.06(1.07)	1.498
자백하지 않는 경우 폭력적으로 위협하기	2.20(1.080)	2.17(1.04)	.549
용의자를 구타 또는 폭행하기	1.97(1.063)	1.97(1.03)	-.032
심리적 위협/사용하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혹독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기	3.33(1.141)	3.43(1.12)	-1.233
용의자에게 피해자와 범행 장소의 사진을 보여주기	4.25(.876)	4.28(.88)	-.475
용의자에게 성금형, 재중, 분노를 표현하기	3.32(1.059)	3.45(.99)	-2.172*

*p<.05, **p<.01, ***p<.001

표 3. 각 신문 기법의 허위 자백 유도 가능성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 차이

	신문 기법		t
	남(N=64) M(SD)	여(N=118) M(SD)	
협박의 제기하기/협박의 거듭 제기하기			
용의자를 반복적으로 추궁하기	3.28(1.069)	3.30(1.13)	.153
용의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만도록 요구하기	2.67(1.088)	2.76(1.13)	.877
부인하는 내용에 대해 이의 제기하기			
용의자의 결백하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점이나 모순을 지적하기	3.20(1.088)	3.31(1.10)	.994
용의자에게 반복적으로 그의 일리바이가 거짓이라고 말하기	3.07(1.057)	3.06(1.11)	-.085
용의자가 자신은 죄가 없다고 부인하는 말을 계속 끊어버리기	2.68(1.121)	2.70(1.13)	.050
실제 유죄 증거를 직면시키기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용의자에게 판단 불가능 결과가 나왔다고 사실대로 말하기	2.33(1.078)	2.44(1.13)	1.040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용의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결과를 나왔다고 사실대로 말하기	3.14(1.152)	3.27(1.07)	1.120
허위 유죄 증거를 직면시키기			
용의자에게 죄를 입증할 수 있다며 가짜 감시카메라 증거를 제시하기	3.10(1.095)	3.08(1.00)	-.248
용의자에게 죄를 입증할 수 있다며 가짜 DNA 증거를 제시하기	3.25(1.202)	3.23(1.08)	-.276
용의자에게 죄를 입증할 수 있다며 가짜 지문 증거를 제시하기	3.22(1.194)	3.08(1.11)	-1.190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용의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속이기	3.03(1.062)	2.90(1.08)	-1.200
관대한 처분을 약속하기			
용의자를 동정하며 그 범죄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하기	2.74(1.110)	2.84(1.11)	.799
자백하면 실제보다 가벼운 범죄로 기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용의자에게 암시적으로 제안하기	3.29(1.071)	3.32(1.05)	.196
자백하면 형량이 감소될 것이라고 용의자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기	3.54(1.100)	3.38(1.10)	-1.443
자백하면 형량이 감소될 것이라고 용의자에게 암시적으로 제안하기	3.32(1.054)	3.29(1.11)	-.358
자백하면 형량이 감소될 것이라고 용의자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기	3.54(1.145)	3.40(1.17)	-1.297
신체적 위협/사용하기			
잠을 깨우지 않고 밤새도록 신문하기	3.44(1.266)	3.33(1.36)	-.861
자백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암시적으로 위협하기	3.08(1.155)	2.79(1.18)	-2.512*
자백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위협하기	3.38(1.274)	3.05(1.32)	-2.685**
자백하지 않는 경우 폭력적으로 위협하기	3.27(1.289)	2.84(1.44)	-3.234**
용의자를 구타 또는 폭행하기	3.31(1.388)	2.88(1.45)	-3.275**
심리적 위협/사용하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혹독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기	3.33(1.106)	3.23(1.19)	-1.014
용의자에게 피해자와 범행 장소의 사진을 보여주기	3.22(1.105)	3.49(1.06)	2.475*
용의자에게 성급함, 책증, 분노를 표현하기	2.76(1.142)	2.87(1.18)	.933

*p<.05, **p<.01, ***p<.001

2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용의자에게 피해자와 범행 장소의 사진을 보여주기($M=4.25$, $SD=.876$), 용의자를 반복적으로 추궁하기($M=4.15$, $SD=.853$), 용의자의 결백하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점이나 모순을 지적하기($M=4.08$, $SD=.728$), 자백하면 형량이 감소될 것이라고 용의자에게 암시적으로 제안하기($M=4.05$, $SD=.794$), 자백하면 실제보다 가벼운 범죄로 기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용의자에게 암시적으로 제안하기($M=4.03$, $SD=.896$)의 순서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신문 기법이라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용의자에게 성급함, 짜증, 분노를 표현하기($t(181)=-2.172$ $p=.031$), 용의자를 반복적으로 추궁하기($t(95)=-3.089$, $p=.003$)가 더 빈번히 사용된다고 인식하였으며,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용의자를 동정하며 그 범죄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하기($t(181)=2.766$, $p=.006$)가 더 빈번히 사용된다고 인식하였다.

각 신문 기법들이 얼마나 허위 자백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허위 자백 유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백하면 실제보다 가벼운 범죄로 기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용의자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기($M=3.54$ $SD=1.100$)와 자백하면 형량이 감소될 것이라고 용의자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기($M=3.54$ $SD=1.145$),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도록 신문하기($M=3.44$ $SD=1.266$), 자백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위협하기($M=3.38$ $SD=1.274$),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혹독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기($M=3.33$ $SD=1.106$), 용의자를 구타 또는 폭행하기($M=3.31$ $SD=1.388$)의 순서로 허위 자백 유도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 또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증하였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백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암시적으로 위협하기($t(177)=-2.512$ $p=.013$), 자백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위협하기($t(177)=-2.685$ $p=.008$), 자백하지 않는 경우 폭력적으로 위협하기($t(106)=-3.234$ $p=.002$), 용의자를 구타 또는 폭행하기($t(180)=-3.275$ $p=.001$)의 기법들이 허위 자백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용의자에게 피해자와 범행 장소의 사진을 보여주기($t(177)=2.475$ $p=.014$)가 허위 자백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참가자들에게 경찰 신문 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경찰이 용의자나 피의자를 신문하는 평균 시간은 7시간 16분($SD=10$ 시간 8분)으로 추정하였다.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필요한 총 신문 시간은 15시간 3분($SD=18$ 시간 47분),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한 번에 최대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을 11시간 5분($SD=22$ 시간 55분)으로 매우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최대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 24시간 이상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를 제외하면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한 번에 최대한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은 4시간 20분($SD=3$ 시간 8분)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용의자나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제한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총 응답자의 48%였는데 이들은 법으로 규정된 신문 제한 시간을 16시간 27분($SD=26$ 시간 13분)일 것이라고 매우 높게 추정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평균 신문 시간을 약 4시

표 4. 경찰 신문 시간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 차이

	남(N=65)	여(N=118)	df	t
	M(SD)	M(SD)		
평균 신문 시간	10시간 05분 (14시간 25분)	5시간 43분 (6시간 15분)	79	2.344*
자백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신문 시간	16시간 42분 (14시간 15분)	14시간 15분 (18시간 52분)	180	.840
자백을 얻기 위해 한 번에 최대한 신문할 수 있는 시간	5시간 21분 (3시간 48분)	3시간 47분 (2시간 35분)	181	2.735**
신문 제한 시간이 법으로 규정 되어 있는 경우 신문 제한 시간	19시간 11분 (26시간 24분)	14시간 42분 (26시간 11분)	88	.787

*p<.05, **p<.01, ***p<.001

간 정도 길게 인식($t(79)=2.344$ $p=.022$)하였고, 자백 유도를 위해 필요한 일 회 최대 신문 시간을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그 시간을 약 2 시간 정도 길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81)=2.734$, $p=.008$).

자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자백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증거들이 사건 해결에 있어 얼마

만큼 중요하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DNA 증거($M=4.77, SD=.514$), 지문 증거($M=4.38, SD=.694$), 자백 증거($M=3.52, SD=.927$), 목격자 증언($M=3.48, SD=.839$), 거짓말 탐지기($M=2.76, SD=.979$)의 순서로 사건 해결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자백 증거($t(179)=-2.323$, $p=.021$)와 거짓말 탐지기($t(179)=-3.274$ $p=.001$)를 더 중요

표 5. 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각 증거의 중요도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

	남(N=65)	여(N=116)	df	t
	M(SD)	M(SD)		
DNA 증거	4.82(.464)	4.75(.542)	179	.819
지문 증거	4.31(.789)	4.43(.636)	180	-1.147
자백 증거	3.31(.934)	3.64(.908)	179	-2.323*
목격자 증언	3.35(.856)	3.55(.827)	179	-1.525
거짓말 탐지기	2.45(.969)	2.93(.948)	179	-3.274**

*p<.05, **p<.01, ***p<.001

표 6. 자백 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평균(표준편차)	중위수	최빈값
경찰 신문 중 유죄인 자가 자백할 확률	44.73(20.989)	40.00	30
경찰 신문 중 무죄인 자가 자백할 확률	32.04(29.666)	20.00	10
법적 허용 범위 내의 혹독한 경찰 신문 중,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자백할 확률	56.03(22.779)	60.00	80
법적 허용 범위 내의 혹독한 경찰 신문 중,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자백할 확률	32.61(28.910)	30.00	5

표 7.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확률

	평균(표준편차)	(1)	(2)	(3)
본인이 진실과 거짓을 정확히 구별할 확률 (1)	61.07 (11.495)	1.00	.613***	.562***
타인이 진실과 거짓을 정확히 구별할 확률 (2)	59.59 (10.453)		1.00	.517***
특별 훈련을 받은 이들(경찰, 검찰, 출입국 관리 직원 등)이 진실과 거짓을 정확히 구별할 확률 (3)	75.19 (11.203)			1.00

*p<.05, **p<.01, ***p<.001

한 증거라고 생각하였다.

자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 신문 중 유죄인 사람과 무죄인 사람들의 몇 퍼센트가 자백을 할 것인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혹독하게 진행되는 경찰의 신문 중 본인이 저지른 범죄와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자백할 가능성을 유추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찰 신문 중 유죄인 자가 자백할 확률(44.73%)을 무죄인 자가 자백할 확률(32.04%)보다 높게 추정하였고,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자백할 확률(56.03%) 또한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자백할 확률(32.61%)보다 높게 추정하였다.

또한 본인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

게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사, 경찰관, 출입국 관리직원들과 같이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진실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진실과 거짓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확률의 경우, 참가자들은 일반적으로 주체가 본인(61.07%), 타인(59.59%), 훈련을 받은 사람들(75.19%)의 확률을 높게 추정하였다. 참가자들은 본인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확률을 높게 추정할수록 타인 그리고 특별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확률을 높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신문 기법과 자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그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일반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인권이나 피의자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고 신문 과정에서 적당한 폭력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적인 신문 기법의 사용을 예방하고 허위 자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피의자에게 자신의 기본 권리를 고지하는 것을 꼽는다(Kassin et al., 2010). 미란다 권리라고도 불리는 피의자 권리 고지의 목적은 허위 자백이나 강압수사와 같은 인권침해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다(김민지, 2013). 허위 자백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DNA 증거의 재분석을 통해 무죄를 입증 받은 사례들이 전체 재판 사례들의 약 25%를 차지한다(The Innocence Project, 2014, April 10). 특히 나이가 어린 용의자의 경우 허위 자백의 가능성이 성인보다 높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잘 모른다면 재판에서 제시된 자백 증거의 임의성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십대들이 성인보다 더 충동적이라고 생각할수록 피의자의 권리는 다소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면 범죄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범죄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며 신문 과정에서 적당한 폭력이나 위협과 같은 인권 침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의자의 기본 권리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잠재적인 배심원이 될 수 있는 대학

생들의 경우 총 24개의 신문 기법들에 대한 사용 빈도는 신체적인 위협이나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을 하기보다는 심리적인 신문 기법들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특히 용의자에게 피해자와 범행 장소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반복적으로 추궁하기, 용의자가 결백하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제기나 모순을 지적하기, 자백하면 형량이 감소할 것이고 가벼운 범죄로 기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암시적으로 제안하는 기법들을 자주 사용한다고 생각하였다. 자백하면 형량을 감소시켜준다거나 가벼운 범죄로 기소 받을 수 있다고 암시적으로 제안하는 이러한 기법들은 신문 대상자들을 심리적으로 조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ssin et al., 2010). 타인의 말을 이해할 때는 그 말이나 단어의 의미보다는 암시하는 내용을 기억하고 처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문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암시적인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관이 관대하게 형량을 낮춰준다고 이해한다.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실험 연구(Marchet, Meissner, Russano, 2011)를 통해 이러한 심리적으로 조작하는 기법들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거짓 자백의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죄 편향적인 편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유죄인 사람보다 무죄인 사람에게 자백을 받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사관의 편견 자체가 좀 더 심리적으로 강압적인 기법을 사용하게 만들어 허위 자백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으로 관대한 처분에 대한 약속과 신체적인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는 기법들이 허위 자백을 유도할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백하면 실제보다 가벼운 범죄로 기소 받을 수 있다고 용의자에

게 분명하게 약속하거나 형량이 감소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는 방법,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 신문하거나 신체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위협하고 구타나 폭행하기와 같은 신체적인 위협이 허위 자백 유도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형량을 감소시켜준다거나 가벼운 범죄로 기소해주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는 기법은 허위 자백의 가능성을 가장 높다고 생각했지만 비교적 암시적인 제안의 경우에는 허위 자백의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 관대한 처분에 대해 명확하게 약속하는 것이 암시적으로 약속하는 것보다 더 허위 자백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신문 기법의 사용 빈도와 허위 자백 유도 가능성에 대한 성별의 차이도 나타났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신체적인 위협을 사용하는 것이 허위 자백을 유도할 가능성을 더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지각하는 신체적 위협/손상의 범주와 수준이 여성들의 지각과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성차가 명시적 또는 암시적 위협의 지각과 강도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신문 시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찰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피의자 조사 시간은 2시간 전후라고 답변한 것에 비해(이윤, 2005), 참가자들은 평균 신문 시간, 자백 유도를 위해 필요한 신문 시간, 자백 유도를 위해 필요한 최대 신문 시간 모두 약 5시간 이상으로 무려 2-3배 이상 길게 추정하였다. 신문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위 자백 유도 가능성이 증가하며, 대부분의 신문이 2시

간 내로 진행되는 미국에서 허위 자백을 한 사람들의 경우 84%가 6시간 이상의 신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Drizin & Leo, 2004). 특히 자백 유도를 위해 필요한 일 회 최대 신문 시간을 약 11시간 5분으로 추정하였으며 참가자의 약 13%는 24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또한 법으로 신문 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답변한 경우 신문 제한 시간을 평균 16시간 27분으로 추정하였다. 법에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125건의 허위 자백으로 인한 재판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평균 신문 시간이 16.3시간(Drizin & Leo, 2004)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보면 신문 시간에 대한 인식에 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는 국내에 신문 시간과 관련하여 법적인 규정이 없으며 심야 조사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점(이기수, 2012) 등 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신문 시간을 유의하게 길게 추정했는데 이 또한 남성과 여성이 지각하는 신체적 위협/손상의 범주와 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식된 신문 시간이 실제 신문 시간보다 상당히 길다는 사실은 참가자들이 무고한 용의자에게서 허위 자백을 유도할 만큼 강압적일 수 있는 신문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여섯째, 유죄인 자가 무죄인 자에 비하여 자백할 확률이 높다고 추정하였는데 이는 강압적인 신문 기법으로 무죄인 용의자에게서도 허위 자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Drizin & Leo, 2004). 또한 본인은 타인보다 좀 더 진실과 거짓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특별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확률을 월등히

더 높게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전에 이루어진 수많은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짓과 진실에 판단의 정확성은 평균 54%였고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도 거짓말 탐지 능력은 약 45%에서 60% 사이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ond & DePaulo, 2009, Kassin et al., 2010).

일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신문 기법, 자백, 신문 시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반인들이 배심원이 되면 자백의 임의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문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경우 잘못된 유죄 판결에 대한 가능성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의 한계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에 국한되었기에 한국 성인 전체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의 인식이 낮을 것을 감안하면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신문 기법이나 자백에 대한 이해도는 더욱 낮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연령대에서의 경찰 신문과 허위자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수사 기관의 신문 기법 및 시간과 자백에 대한 편향된 인식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했을 뿐 실제 재판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인식들이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인식이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신문 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허위 자백의 원인, 사례 분

석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권영범, 2012; 김민지, 2013; 박갑렬, 2005; 백승경, & 김재휘, 2005; 이기수, 2012; 이기수 & 김지환, 2012) 이러한 신문 기법과 허위 자백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신문 기법의 강압성 인식과 각 기법들의 허위 자백 유도 가능성, 그리고 신문 시간을 추정하는데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학생들이나 잠재적인 배심원들이 신문 기법의 강압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리적인 압력을 사용하는 기법들이 허위 자백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신문의 평균 시간에 대해서도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과대 추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 자백의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 허위 자백, 신문 기법, 신문 시간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의 정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정에서 신문 기법들의 특성이나 허위 자백 유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증언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실 판단자들(판사나 배심원)이 적절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시사한다.

참고문헌

- 권영범 (2012). 현대 심리신문기법과 허위자백. 형사정책연구. 23(3), 91-127
- 경찰청 (2012). 2012 범죄통계. 서울: 경찰청

- 경찰청 (2010). 형사사법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수사구조개혁백서. 서울: 경찰청.
- 김민지 (2013). 피의자 신문 기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경찰연구*, 12(1), 31-62.
- 김상준 (2013).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용선 (2008).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잔디 (2008).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법교육연구*, 3(2), 71-91
- 김청택 & 최인철 (2010). 법정 의사결정에서의 판사들의 인지편향. *서울대학교 법학*, 51(4), 317-345.
- 김충식 (2013). 효율적인 신문기법에 관한 실증적 고찰. *한남법학연구*, 1, 105-152.
- 박갑렬 (2005). 피의자신문기법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박경민, 임유석, & 김도우 (2009). 범죄수사절차상 자백의 활용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5(2), 31-54.
- 박미숙 (2010).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형사정책연구*, 82, 135-174.
- 박용철 (2006). 기망에 의한 자백의 임의성 (Voluntariness)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 *서강법학연구*, 8(-), 61-78.
- 박용철 (2013). 리드기법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8, 91-116.
- 박현정 (2013년 8월 27일). 범인 ‘만들어 낸’ 경찰 조서. *한겨레*2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1062.html으로부터 검색
- 백승경 & 김재휘 (2005). 반복질문이 허위자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3), 23-36.
- 이기수 (2012). 형사절차상 허위자백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기수 (2012). 논문: 허위자백의 사례분석을 통해 본 형사절차상 문제점. *비교형사법연구*, 14(1), 165-192.
- 이기수 & 김지환 (2012). 피의자신문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1(4), 233-258.
- 이윤 (2005). 경찰수사절차상 진술 녹음·녹화제 도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윤 (2009). 수사 절차상 신문과정의 영상녹화 필요성과 영상녹화에 대한 경찰수사관들의 태도. *한림법학 Forum*, 20, 11-37.
- 하태인 (2011). 자백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실질적 기준의 정립. *형사법연구*, 23(3), 231-260.
- Bond, C. F., & DePaulo, B. M. (2009). Accuracy of deception judgm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3), 214-234.
- Drizin, S. A., & Leo, R. A. (2004). The problem of false confessions in the post-DNA world. *North Carolina Law Review*, 82, 891-1007.
- Findley, K. A., & Scott, M. S. (2006). The multiple dimensions of tunnel vision in criminal cases. *Wisconsin Law Review*, 2006, 291-397.
- Horvath, F., Jayne, B., & Buckley, J. (1994). Differentiation of truthful and deceptive criminal suspects in behavior analysis interviews.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39(3), 793-807.
- Kassin, S. M., Drizin, S. A., Grisso, T.,

- Gudjonsson, G. H., Leo, R. A., & Redlich, A. D. (2010). Police-induced confessions: Risk factors and recommendations. *Law and Human Behavior, 34*(1), 3-52.
- Kassin, S. M., & Gudjonsson, G. H. (2004). The psychology of confess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ssu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5*(2), 33-67.
- Kassin, S. M., & Sukel, H. (1997). Coerced confessions and the jury: An experimental test of the "harmless error" rule. *Law and Human Behavior, 21*(1), 27-46.
- Kebbell, M. R., & Davies, G. M. (Eds.). (2006). *Practical psychology for forensic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Vol. 31). John Wiley & Sons.
- Leo, R. A. & Davis, D. (2010). From false confession to wrongful conviction: Seven psychological processes. *Journal of Psychiatry & Law, 38*(1-2), 9-56.
- Leo, R. A., & Liu, B. (2009). What do potential jurors know about police interrogation techniques and false confessions?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7*(3), 381-399.
- Leo, R. A. (2009). False confessions: Causes,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37*(3), 332-343.
- Leo, R. A., & Ofshe, R. J. (1998). The consequences of false confessions: Deprivations of liberty and miscarriages of justice in the age of psychological interrogation.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88*(2), 429-496.
- Meissner, C. A., & Kassin, S. M. (2002). "He's guilty!": Investigator bias in judgments of truth and deception. *Law and Human Behavior, 26*, 469-480.
- Narchet, F. M., Meissner, C. A., & Russano, M. B. (2011). Modeling the influence of investigator bias on the elicitation of true and false confession. *Law and Human Behavior, 35*, 452-465.
- Rattner, A. (1988). Convicted but innocent: Wrongful conviction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Law and Human Behavior, 12*(3), 283-293.
- Snook, B., Eastwood, J., Stinson, M., Tedeschi, J., & House, J. C. (2010). Reforming investigative interviewing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52*(2), 215-229.
- The Innocence Project (2014, April 10). Retrieved from <http://www.innocenceproject.org/>

1 차원고접수 : 2014. 06. 02.

심사통과접수 : 2014. 06. 23.

최종원고접수 : 2014. 06. 30.

Perceptions of Police Interrogation Techniques and Confession

Minchi Kim

Do Yeon Kw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perceptions of police interrogation techniques and false confession in Korea. General perceptions on police interrogations and their techniques, including how frequently those interrogation techniques are actually used and whether such techniques would elicit false confession, were examined. Furthermore, general perceptions on confession, including the importance of confession evidence in trials and confession possibilities between guilty and innocent were also measured. The results revealed some misconceptions about police interrogation techniques and confession. Also,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general perceptions of interrogation techniques by gender. The findings suggest that most lay people believe that police interrogations hardly elicit false confessions from innocent suspects and confessions are reliable evidence. Implications for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will be discussed.

Key words : *interrogation techniques, interrogation duration, confession, wrongful conviction, perception*